

천상천하 으뜸가는 인민의 락원입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명철

하늘이 낸 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조국의 역사를 회억할수 있다는것은 그 자체가 나라와 인민이 받아안은 대등운입니다.

력사의 9월을 맞으니 전인미답의 일흔다섯고개를 승리와 영광의 봉우리를 뚫어내주시길 열세위인들의 숭고한 헌신사가 이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줍니다.

전국의 첫 기술에서 아버지주석님을 모시고 신생조선의 국기를 띄우는

건국대업의 구세주를 우리리

이 나라의 아이들조차 너무도 잘 알고있는 9월 9일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에게는 그 의미가 류달랐으니 사유를 말하자면 아마도 많은 세월을 소급해야 할것입니다.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땅의 치욕과 어머니주석님의 외할아버지들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는 특별하운 동정의 빛을 뿌려주는 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학비난으로 하여 끝내 학교를 중퇴한 할아버지는 그후 고향 칠골로 돌아와 아버지주석님의 외할아버지인 강동옥선생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던 창덕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였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조선이 신화속의 《에덴동산》이 되기를 바랬고 눈물속에 살아가는 우리 조선민족이 행복의 《천사》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받들온 《하느님》도 그 소원을 풀어주지 못했다 불우한 인생들을 건져 주지 못했습니다.

뜻대로 사대도 없는 일열편주의 신세로 무연창과우에서 민족의 푸른 하늘을 찾아 몸부림치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1937년 6월은 바야흐로 펼쳐질 운명의 하늘을 확인하게 된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어느날 할아버지가 《동아일보》 6월 5일부의 석간을 보게 되었는데 2면 최상단에 큰 활자로 《공산군 대부대 월경습래, 주체소 등 관공서에 총화, 4일 오후 갑산 보천보에서》라는 제목이 찍혀져있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조선의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슬막히는 세월에 정말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천보를 들이쳐 겨레의 명든 가슴에 제왕의 시광을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이 다음날인 10여년전 자기가 담임했던 창덕학교의 김성주학생이라는것이었습니다.

열두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두 나라 지경을 넘어 천리길을 걸으신분. 그때 벌써 영웅남아의 기상이 풍기는 비범특출한 인품과 자질, 뜨거운 애국열로 은 학교의 선망을 모았던 10대의 인걸.

할아버지는 절출한 위인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더없이 복받은 생이며 은 민족이 우려하는 김일성장군님은 이 나라의 운명을 구원 하라하고 하늘이 낸분이심을 깨달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혹의 경지를 초월한 인간의 감정은 절대적인 숭상을 낳는 법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믿고 살 운명의 하늘은 곧 김일성장군님이시었

남다른 특전을 지녔던 나의 할아버지 (강명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 뜻 깊은 시각에 붓을 들어 격정을 터쳤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3대를 내려오며 숭앙해 온 천출위인들을 경건히 우러르며 선친들의 마음까지 합쳐 조국완가, 위인찬가의 글씨를 삼가 엮어봅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출중한 위인상에 절대적으로 매혹된 할아버지였기에 전설처럼 전해져오는 김장군이야기를 생의 첫걸음으로 간직하고 살았으며 해방후 시인 리찬이 《김일성장군찬가》를 창작했을 때에는 늘 시의 구절구절을 읊고 다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탄생에 선조하던 력사의 그날 창공높이 휘날리는 탐룡새를 날게 하듯 뚫어내려 왔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늘에 빌어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 때가 없고 하늘을 믿어 민족이 흥한 력사가 없었으니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불행했던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복락을 안겨주시는 현세의 대성인, 우리모두가 떠이고 살 운명의 하늘이시다.》

어찌 이것이 75년전의 고백만이라 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한생은 그대로 조선의 하늘, 민족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경모의 마음이 나날이 뜨겁게 달아오른 열렬한 태양숭배의 한생이었습니다.

생애의 말년까지 국가의 중요직책을

만고의 대성인에게 매혹되어

생전에 나의 아버지(강명철)는 자주 이런 말을 외었습니다.

시련은 인간이나 사회의 진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인류가 처음 보는 지상천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은 력사의 거룩한 시련대우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래동안 활동해온 아버지는 사업특성상 남다른 체질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외국출장길들에서 겪은 이름 못할 감동들을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산 나의 아버지입니다.

불거진 거리와 마을들을 차창으로 내려다보며 쓰라린 마음안고 출장길에 번화가 배운들이 번쩍이는 서방세계의 문화가 내려오고나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세상에서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확신과 자부심때문이었다고 아버지는 회고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국제적인 종교행사참가를 위해 한달남게 미국에 머물러있던 주체 84(1995)년 7월 어느날이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산보를 하다가 가로수 밑에서 아이를 낳고있는 한 녀성을 목격하였는데 알아보니 진통이 와 병원에 달려왔지만 해산비와 입원비가 모자라 쫓겨났다는것이였습니다. 보다 경악스러웠건은 주변사람들의 맹담한 태도였는데 신사복을 쪽 빼입은 미국시민들이 그 불쌍한 녀성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길가의 더러운 오물을

말아온 할아버지가 늘 감탄하곤 하는 주석님의 가장 매혹적인 위인상은 다르게 아니였습니다.

그 어디 가시어도 먼저 쌀독과 밥가마부터 열어보시며 인민들의 살림살이행편을 헤아려보시고 상침에 들리시면 인민들에게 차려질 된장맛도 허물없이 보아주시는 주석님의 자애로운 아버지모습에서 늘 눈시울이 뜨거워진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에오라지 인민을 잘살게 하려고도 누구보다 찬이슬에 옷자락을 많이 적시신 주석님께 있어서는 인민이 곧 부모이고 하늘이며 인민이 있는 곳이 자신의 제1집무실이 아니였습니다.

그렇듯 위대한 품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인민의 모습은 노명 행복의 《천사》들이였고 해빛따사로운 이 강산은 그대로 지상의 천국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해인 주체 71(1982)년 9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모여앉은 자식들앞에서 엄숙하게 하신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9월 9일은 단순히 새 조성이 일떠선 날이 아니다. 인류사상 처음으로 지상천국이 세워진 날이다. 하느님에게 기도하면 죽어서 천당에 간다했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모두가 살아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주시었다. 너희들은 진정한 조선의 하느님이신 절세의 위인들만을 대를 이어 받들 어보셔야 한다. ...

바로 이것이 위대한 주석님의 품속에서 앓는 삶을 누려온 할아버지가 찾은 인생의 총화였습니다.

대하는것같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련민과 환민의 감정이 엇갈리는 속에 이상하게도 짜릿한 향수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너와 나 따로 없는 우리가 되어 어디서나 미담미담의 꽃송이들이 백화만발하는 내 나라가 명암처럼 대조되며 몸시도 돋보였습니다.

《경제적품요》를 자랑하면서도 인간세상고유의 정은 피물만큼도 없는 서방세계가 장글과 다름없다면 산보를 위해 직송기가 날고 저마다 특영예군인의 걸동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 자식없는 로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 조국은 말그대로 인덕이 차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러 우리 조국의 실상에 대해 소상히 전해들은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무척 놀라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성서에서도 보지 못하였. 사랑의 《천사》들이 사는 당신네 나라야말로 진짜 천국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생활상근난은 있을지언정 미담과 미덕이 전설의 화원을 이룬 나라.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하기에 언제인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그리스도교국제회의에 참가한 세계교회협의회(한 목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술직히 나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고난속에서 사회의 기초인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를 관찰하려 하였다. 도출한 결론은 첫째로 나의 목표 설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 둘째로 조선은 도덕적부자의 나라라는것, 셋째

로 조선은 이미 천국의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이다.》

세상에 다시없는 인덕의 화원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토양으로, 자양으로 하고있습니다.

고난의 그 나날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분이 다음날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심을 이 나라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있었습니다.

종처럼 눈물을 안보이던 나의 아버지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주체 86(1997)년 8월 어느날 저녁 어머니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였었던 심중의 고백이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소뿔도 휘어진다는 삼복철에 한결 선선한 외국에 가있었지만 전혀 해운함을 몰랐다고, 이 불더위속에서도 천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소식을 전해들으며 뜨거운것을 삼키곤 했던 그 절절한 도로.

한여름철에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새하얀 와이셔츠목이 땀에 젖는것을 볼수 없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만 목젓은 야전복의 목이 마를새 없다고, 우리모두가 죄를 짓고있다고 아버지는 끝내 오열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인민을 울린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이겠습니까.

언제인가 아버지장군님께서도 해방전 아홉자식을 키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어 한생 손끝에 피가 마를새없이 고생하다가 숨진 한 어머니에 대한 가슴쓰라린 이야기를 일군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자신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을 보살펴주려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것이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고생이 곧 락으로 되는 어머니사랑에서 그

불세출의 령장을 모시여 영원한 제일강국

흔히 평화는 인류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평화를 자기의 중요한 리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허나 지성과 교리만으로는 평화를 수호할수 없습니다. 해방전후 사랑과 협력의 그리스도교정신을 설교하던 나의 선친들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손에 총을 겨머넣었고 교리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수 없기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저녁으로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지경밖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둘러보면 장글화되어버린 이 행성에서 나날이 더욱 안전하고 강고한 역척성세로 솟아오르는 나라를 우리 조국 뿐입니다.

전세계를 경탄시킨 사상최고의 대정지군사출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돏경축 열병식장에 이 마음을 다시 세워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열을 받으며 열병행장을 노드려간 전설적인 군위사단, 근위련대 상징준대들과 전선군단준대들, 마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준대들...

그중에서도 제국주의독제를 끝장낸 조선의 절대적적인 실제적인 전략무기종대들의 도도한 격류가 때없이 이 가슴에 파드쳐오곤 합니다.

불수룩 정이 가고 힘이 솟는 그 미 싸이들은 단지 절대병기로만 안겨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칩과 전 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천국의 평화와

깊이와 끝을 헤아릴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왔던것이며 그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폭잡과 철패로 토양으로, 자양으로 하고있습니다.

고난의 그 나날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분이 다음날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심을 이 나라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있었습니다.

종처럼 눈물을 안보이던 나의 아버지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주체 86(1997)년 8월 어느날 저녁 어머니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였었던 심중의 고백이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소뿔도 휘어진다는 삼복철에 한결 선선한 외국에 가있었지만 전혀 해운함을 몰랐다고, 이 불더위속에서도 천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소식을 전해들으며 뜨거운것을 삼키곤 했던 그 절절한 도로.

한여름철에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새하얀 와이셔츠목이 땀에 젖는것을 볼수 없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만 목젓은 야전복의 목이 마를새 없다고, 우리모두가 죄를 짓고있다고 아버지는 끝내 오열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인민을 울린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것이겠습니까.

언제인가 아버지장군님께서도 해방전 아홉자식을 키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했어 한생 손끝에 피가 마를새없이 고생하다가 숨진 한 어머니에 대한 가슴쓰라린 이야기를 일군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자신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을 보살펴주려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것이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고생이 곧 락으로 되는 어머니사랑에서 그

안전을 곳곳이 수호하는 백년요새, 천년방벽, 만년보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오랜 세월 빌었어도 볼수 없었던 평화의 억연성세가 드디어 내 조국땅에 높이도 솟아오르겠읍니다.

오늘의 세계에서는 평화수호의 힘이 세질수록 국가의 존엄과 지위도 함께 높아가는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지금도 6년전인 주체106(2017)년 7월 4일의 감동과 충격이 어찌갈습니까.

그날 우리 공화국의 첫 대륙간단도미 싸이시범발사가 단번성공하였다는 장쾌한 소식을 나는 아침에도 외국출장길에서 들었습니다. 허나 오렐러 몇배나 더 큰 《소독》을 얻었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세계가 조선총력에 빠진 바로 그날 저녁에 도이칠란드의 라이프찌히에서는 세계개혁교회친교회 제26차총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여 성만 찬화가 열렸는데 저저마다 우리 대표들을 찾아와 열렬한 축하를 해주는것이였습니다.

조선이 정말 대단하다. 미국의 《독립 쟁》에 이렇게 큰 《신문보따리》를 안겨줄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조선말고 또 어디 있었는가. 조선은 명실상부한 제일강국이다. 김정은명도자님의 배짱과 담력, 명도술은 세계최고의 최고이다. ...

만장의 경란과 부러움속에 성찬식이 우리 조국의 폐속을 축하하는 경축모임으로 마련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은 부풀대로 부풀고 흥벽에서는 심장박동소리가 팡팡 울려와 미처 억제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 하늘끝에 닿은 내 조국의 존엄과 지위가 이 작은 가슴에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흥분과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갑자기 내 나라 땅속에서 보화가 터져 나온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넘려해서 도와준 덕도 아니였습니다. 조선의 국위를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매혹과 흥도, 감사의 정이 북받쳐와 정령 목이 메여왔읍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과연 어떤 희생을 대가로 안아온 최강국의 영광입니까.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해 눈내리는 새벽길, 풍랑길, 폭우길 지어 생명을 내대야 하는 사신길에도 결사의 맹약을 안고 주저없이 나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올해 3월 신문을 보다가 저오기 놀랐읍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중핵전략공격 무기의 완성을 위해서만도 무려 29차례의 무기시험을 직접 지도하시었다는것입니다.

하다면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탄생 하여온 주체무기, 첨단전략무기들마다 바쳐진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다 합친다면 태양의 열도에 비길 수 무한한 희생의 세계를 어느 누가 제대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열병행장을 누벼나가는 최첨단무장장비들은 비단 첨단군사과학기술만의 산물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승을 모르는 평화의 락원에서 살게 하려는 열화같은 사랑의 응결체, 숭고한 헌신의 산이었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와 땀을 바치신것만큼 평화수호의 힘이 역세어지고 그이께서 사신길을 헤쳐가신것만큼 내 조국의 존엄과 국위가 높아져왔던것입니다.

진정 무궁한 이 조선 길이 빛내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으로 희생적인 위인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우리 조국은 높이도 올라섰고 높이도 비약했습니다.

절대세력들의 끝모르는 극악한 제재봉쇄속에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찍이 가 저본적 없었던 강철의 힘, 절대적인 힘을 비추었고 아침해돋이마냥 솟구친 천하제일강국.

그 누구의 압력과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 인민의 운명을 당당히 수호하며 결심한 모든것은 반드시 거창한 현실로 펼쳐놓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불굴의 나라.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굽어보는 존엄 높은 내 조국의 진모습이며 찬란한 국 위입니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영광과 빛나는 존함으로 영광떨치고 열화의 사랑과 불같은 헌신에 떠받들려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75년!

그 빛나는 령정엔 번영의 나래 돌치고 햇살아 맑은 아침엔 무궁한 미래가 찬란히 비겼으니 더 높아진 우리의 하늘, 더 밝아진 9월의 대지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리상사회인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의 750년, 7 500년에도 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년년이 빛을 뿌리며 영원토록 무궁번영 할것입니다.

